

奇奇妙妙 자태를 품고 (7기묘묘) 성벽처럼 이어진 九峰

키우리산악회와 함께 떠난 진안 구봉산



천명배

언제나처럼 키우리산행을 앞둔 전날에는 설레임땀 일까 아무튼 잠을 설친다. 지난 11일 이른 아침, 밖을 내다보니 날씨가 화창하다. 멀리 무등산이 정상까지 보일 정도로 맑았다. 서둘러 광주시청 주차장에 도착해 일행과 함께 오전 7시 목격지 진안 구봉산으로 출발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창밖에는 고요가 흐르고 평화로운 산골짜기엔 이슬 머금은 안개구름이 산허리를 감아 오른다.

발길마다 색다른 풍광에 산행 피로도 말끔

밖에는 오곡이 무르익어 황금들판이 출렁이며 빨갛게 익은 사과와 감, 고추 그리고 길 옆 가장자리엔 코스모스가 우리를 반기는 듯 했다. 키우리산악회가 창립된지 12년 동안 줄곧 산행을 해왔지만 오늘처럼 잔잔한 감동을 받은 날은 드물다.

2시간 정도 달려 일행은 산행출발점에 도착했다. 벌써 추수를 끝낸 논에서 산행에 앞서 기본 체조와 기념 촬영을 하고 안전 산행을 다짐했다.

눈앞에 다가선 구봉산은 보기만 해도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깎아지른 듯한 엄청난 위엄을 과시하고 있었다. 해발 1천2m, 우린 700m에서 시작한다지만 1봉에서 시작해 9봉을 거쳐 천황사까지 산행을 생각하니 '죽었구나' 싶었는데 산악대장이 "현재 4봉과 5봉사이 100m구름다리를 설치하고 있어 등산 통제중이며 7봉과 8봉 구름다리 등 1.8km에 목재데크 파노라마 데크 등을 설치해 주변 경관을 살려 명산으로 거듭 났다"고 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골짜기를 따라 오르니 장난이 아니다. 절벽 같은 암반사이로 오르는 길은 험했다. 이런 산은 '찬찬찬'이 최고다. 서서히 오르면 된다. '괜히 뒀만 높다해선 안돼'라고 다짐하며 올랐다.

천불암을 지나면서 더욱 험난하다. 코가 땅에 닿는다. 가슴도 닿고 돈내미재를 1차 목표로 우리는 열심히 올랐다. 하늘이 보이지 않은 골짜기를 오르니 "보인다!" 하고 앞선 일행이 외쳤다. 능선의 하늘이 보인다. 선봉도 힘이 드는가보다. 뒤편 걸음에 힘이 솟는다.

'보이네, 하늘이 보이네.' 하지만 보이던 하늘이 금방 시야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렇게 우린 산을 즐기며 향기 그윽한 공기를 마시며 가쁜 숨소리에 삼라만상을 잊고 있었다.

구봉산엔 소나무가 없었다. 낙엽송과 암석뿐이었다. 9봉에 가까워 아주 작은 1m정도 크기의 소나무가 홀로 서 있을 뿐, 돈내미재에서 8



1천2m 구봉산 정상에서 찍은 단체사진. 가을의 전령 낙엽송속으로 멀리 용담호가 보인다.



진안 구봉산의 전경. 왼쪽부터 1봉, 2봉, 3봉...맨 오른쪽이 9봉이다. 지금은 4봉과 5봉 사이에 오작교를 만든다고 등산로 일부가 통제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울림출렁 폭우리들. 울긋불긋 단풍 물결이 가을 산행의 참맛을 선사한다.

봉을 (780m) 올라다보니 아득했다. 그런데 9봉 정상은 산에 가려 보이지도 않았으며 9봉까지 아직도 해발 260m 가량 남았을까, 우린 그렇게 오르고 또 올랐다. 능선을 따라 유격코스에서처럼 줄잡고 오르내리며 300m정도의 계단, 400m 정도의 계단과 절벽의 난간을 오르기도 했다. 마침내 구봉산에서 볼 수 있는 멀리 안개속의 당나귀 귀같은 마이산을 볼 수 있었으며 용담호를 내려다 볼 수도 있었다.

기암괴석 사이로 단풍 물결...산행의 진수를 맛보다

어찌나 급경사인지, 네발로 계단과 암반을 기어오르며 "보이네 하늘이 보이네 보이네 나무가슴이 보이네 보이네 나무 가슴이 보이네 보이네"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산행을 즐기고 있었다.

산행기 숙제를 받고 보니 힘을 내야 했다. 사명이 무엇인지, 거기다 '잘 갔다와'라는 문자까지, 그분의 뒤편까지 산행을 해야 했는데 지리산 타잔이 자꾸 불려세우고, 불려세우고 모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덕분에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정상에 가까우면 금방 정상인듯 한데, 한발 더 한발 더 한봉우리가 더 있었는데 역시나 한봉우리 더 보였다.

구봉산 정상 1천2m 천황봉 표지석을 매만지는 느낌은 어느 산에서나 해냈다는 만족스러움일 것이다. 정상에서 보니 1봉과 8봉이 저 멀리 아래에 있는데 아찔하다.

산에서의 즐거움 만찬시간이야말로 산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공향미'(空香味)랄까. 구봉산 정상에서 오늘날도 운저리 회부침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맛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누가 뭐래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더니 이제야 보인다. 정상 부근



정상을 향한 도전. 가파른 등산로에 목재 데크가 설치돼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됐다.

에 노랗고 빨간 단풍은 산사의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기암괴석의 암봉들은 뾰족뾰족 솟아올라 과연 장관이었다. 만산을 둘러보며 천황사 쪽으로 하산하는 4km의 길도 험난하면서도 지루했다. 급경사의 내리막이 끝이 없고 암반에 줄타기 계단내림에 힘이 들지만 기념사진 찍는 여유로움에 흥겨웠으며 모래알같은 자갈길에서 미끄러져 자꾸 들 넘어졌다.

숨겨진 名山의 속살...아쉬움 뒤로 재회 기약

천황사 앞에는 400여년이나 됐다는 전나무와 하늘을 향해 무성하게 자란 은행나무 등이 사찰을 지키는 듯하고 신라 현강왕 원년(875)에 무염선사가 창건하고 고려 의천대사가 중창했으며 조선시대 해명대사가 중창했다는 천황사는 절간의 정취로 가득했다.

산행을 마치며 나는 다시 한번 꼭 구봉산을 찾아오리라 다짐한다. 그땐 1봉에서부터 시작해 9봉까지 구름다리를 건너는 짜릿함, 멀리 내려다 보이는 용담호의 아름다운 경관을 키우리 산악회에서 보여주리라 기대해 본다.

/글-천명배 거승종합건설부 대표이사 /사진-이광호 광주매일신문 시민기자

www.가족회관.kr

전통 남도 한정식의 명가!

가족회관

남도 전통 한정식 10년전 가격으로 고객님의 모십니다.

점심특선 한정식(1인 18,000원, 3인 이상 15,000원)

저녁한정식 2만 5천원~10만원

▶ 결혼피로연, 각종모임, 상견례 전문, 맞춤형 가격 주문가능. ▶ 가족회관: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9-15 ▶ 예약전화:062)222-3845 (가족회관 건너편 대형주차장 완비)

“명화의 전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예매: www.megabox.co.kr
▶ ARS: 1544-0070

*업그레이드 쿠폰이벤트(주말까지 광영) * 2,000원 할인(총2인)~2,000원 할인(총2인)~영화티켓무료!!
* 1명비상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

1관	마담 뱅덕	전체관람가
2관	메이즈 러너/솔로우 비디오	12세
3관	나의 사랑 나의 신부	15세
4관	나의 사랑 나의 신부	15세
5관	애니벨	15세
6관	메이즈 러너/솔로우 비디오/맨홀	12세/12세 전체관람가
7관	제보자	12세
8관	비긴 어게인	15세
9관	드라큘라: 전설의 시작	15세
10관	제보자/5일의 마중	12세 전체관람

메가박스컬롬버스시네마상무

업그레이드 쿠폰이벤트(주말까지 광영) * 2,000원 할인(총2인)~2,000원 할인(총2인)~영화티켓무료!!
* 1명비상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

1관	애니벨	전체관람가
2관	제보자	12세
3관	솔로우 비디오	12세
4관	에코/맨홀	전체관람
5관	비긴 어게인 /마담 뱅덕	전체관람가
6관	행복배달부 멧아저씨(더빙)/제보자	15세
7관	드라큘라: 전설의 시작	15세
8관	나의 사랑 나의 신부	15세
9관	메이즈 러너/솔로우 비디오	12세
10관	나의 사랑 나의 신부	15세

메가박스컬롬버스시네마하남

“전 좌석 가족시트로 교체 고객만족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메가박스전대